

P-172

신장이식 후 맥파전달속도의 변화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가천의대 김병원

이현희, 김애진, 노한, 정지용, 장제현, 정우경

Prospective Study of Serial Changes in Pulse Wave Velocity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Hyun Hee Lee, Ae Jin Kim, Han Ro, Ji Yong Jung, Jae Hyun Chang, Woo Kyung Chung

College of Medicine, Gachon University

배경: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중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투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이식 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신이식 후에도 일반인해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게 측정된다. 동맥경직도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고 맥파전달 속도가 동맥경직도를 잘 반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저자들은 맥파전달 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이식 전후 동맥경직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20세 이상 신장이식 대기자 중 68명에서 측정하였다. 신이식 예정으로 입원 시에 이식 전 검사를 시행 하였고, 연속적으로 이식 시행 후 6개월, 1년에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 ankle brachial index (ABI), 혈압, parathyroid hormone (PTH), alkaline phosphatase(Alk-p), cholesterol, uric acid, 25 hydroxyvitamin D (25D), 1,25 hydroxyvitamin D (1,25D) 등을 측정하여 관련성도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46세였고, baPWV는 이식 전, 이식 후 6개월, 1년에 각각 평균 1497 ± 249 cm/s, 1385 ± 226 cm/s, 1357 ± 183 cm/s로 측정 되었다. 이식 후 6개월 까지 호전된 변화를 보이지만 6개월 이후 1년 사이는 차이가 없었다($p < .05$). 마찬가지로 다른 인자들도 6개월 시점 까지는 의미 있게 변화를 보였으나 이후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차이가 없었다. Alk-p, 1,25D, 이완기 혈압이 이식 후 6개월에 증가 소견을 보였고, PTH, ABI, 수축기 혈압 등은 6개월에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식 후 baPWV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당뇨 환자에서 비당뇨 환자보다 높고, 이식 전 투석 기간이 3년 이상인 환자에서 빈도가 높았다.

결론: 신장이식 후 6개월을 기점으로 맥파전달 속도 및 관련 인자들이 호전을 보이지만 동맥경직도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Key Words: 신장이식, 맥파전달속도, 전향적인 연구

Prospective study, Pulse wave velocity, Kidney transplantation